

[로스쿨 합격기]

후회 없이 노력한 결과...



이 성 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2기(2020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올해 입시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로 입학하게 된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며, 가끔씩 읽었던 합격수기들의 도움으로 힘을 내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제 경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I.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18년 가을이었고, 법학적성시험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개략적으로나마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알아 본 결과 수치화 할 수 있는 정량요소 중에서 학점과 영어성적은 제가 강점을 갖기 힘

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학점과 영어성적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지만, 법학적성시험과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적성시험 준비과정과 그 이후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법학적성시험 준비기간(2019년 1월 ~ 2019년 7월)

앞서 말씀드린 것을 구체화 하자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기 시작한 당시 제 학점(약 94-95)과 영어성적(토익 945)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남은 학기에는 학점

을 최대한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영어 성적은 법학적성시험(이하 리트) 응시 이후에 더 응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리트 준비에 투자하였습니다.

1. 2019년 1월 ~ 2019년 3월: 기초 과정

저는 추가학기 없이 졸업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2019년 1학기에는 학점관리와 리트준비를 병행해야 했고 따라서, 이 시기가 리트 준비에 가장 전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하기에 앞서 살펴보니, 리트의 경우 이미 기출 문제가 꽤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여 이것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리트를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 공부법에 가이드라인을 누군가 잡아준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를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스스로 강의의 내용을 반복하고 올바른 해설을 체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월 부터는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와 2인 스터디를 구성해 주 1회 서로의 문제 분석을 공유하고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풀이를 함께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2. 2019년 4월 ~ 2019년 6월: 문제 풀이

앞선 시기에서 기출문제를 다회 반복한 결과, 기출문제 학습을 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읽고 생각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정답을 고른 뒤 '이건 확실하냐는 문제니까 넘어가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대충 문제를 푸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극을 주고자 PSAT, PEET, MEET 등의 유사기출 문제를 풀거나, 사설 모의고사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문제를 푸는 와중에도 리트 문제에 최적화된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기출문제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틀린 선지를 올바른 선지로 고치는 연습을 하며 정답을 기본 논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2019년 6월 말 ~ 2019.7월

종강 이후, 다시 한 번 리트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때부터 실제 시험과 똑같은 스케줄로 기출/사설 모의고사를 매일 번갈아가면서 시간을 측정하며 풀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황을 가정하여, 일부로 시간을 10분 적게 사용하거나, 마킹을 2번 해보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자주 틀렸던 유형의 문제들을 기출/유사기출에서 발췌 편집하여 유형별로 같은 문제들을 내리 풀며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Ⅲ.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시기 (2019년 7월 ~ 2019년 11월)

리트가 끝난 이후에는 충분히 휴식하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영어 성적을 P/F로 반영하거나 반영비율이 낮아 영어 공부는 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저의 학점(GPA 94.9)와 리트 성적(141.5)를 고려하여 지원을 희망했던 학교들 중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했습니다.

1. 자기소개서 집중 시기(2019년 8월 ~ 2019년 9월)

다행히 평소 희망하였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도전해볼만하다는 판단이 서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과거 자기소개서 양식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의 첨삭과정을 거치기도 하였고, 사기업에 취직한 친구의 조언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미 저보다 먼저 입시과정을 통과해 로스쿨 생활을 마쳤거나, 하고있는 선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는 저의 과거 일반대학원 법학과 진학을 고민했던 경험들, 법학 수업을 들으며 느꼈던 흥미뿐만 아니라, 과거 여행의 경험, 중학교 때의 꿈까지 돌아보면서 이것들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열정을 연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면접스터디 하나를 시작하여, 이준일 교수님의 '인권법'을 강독하며 법률가의 기본적인 소양과 가져야할 사명감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인권법'을 강독했던 경험이 후에 면접 과정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8월 말부터는 면접스터디를 하나 더 구해 자소서 첨삭과 병행하며 면접에 좀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한 스터디에서는 시사 위주의 문제 대비를, 한 스터디에서는 인권법 강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2. 면접 집중 시기(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서류 접수 막판, 다시 잠깐 자소서 준비에 힘쓰다가 10월부터는 다시 면접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때는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보

다는, 실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발성이나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양 스터디에서 모두 함께했던 구성원들이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만큼은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어서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IV. 마치며

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치르며 늘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리트는 최고점을 경신하는 시험이 아니라, 최저점을 경신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높은 점수가 나올 수는 있어도, 저점을 탄탄히 다진 사람이 좋은 리트 성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해 좌절 할 때도 약점을 매운다는 생각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 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는 이 과정을 겪고 싶지 않게, 그래서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노력한 결과, 리트 시험을 보는 당일 아침에도, 학교에 방문해 서류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면접을 보고 나오면서도 한 단계 씩 끝이라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하나씩 보완 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